

히토요시 쿠마

일본 유산

히 토요시 쿠마 지역의 문화재가 '일본 유산'으로 문화청에 인정되었다.

사가라 700년이 초래한 보수와 진취의 문화
~일본에서 가장 풍부한 은신마을 히토요시 구마~



【이야기 소개】

히토요시 구마 사가라 영주는 급경사로 둘러싸인 규슈산지를 장점으로 이용해 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일본역사상 '사가라 70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통치를 했다. 특히 영주와 민중이 '하나가 되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정신이 형성되어, 신사나 절, 불상, 신악 등을 함께 신앙하고 즐기고 지키는 문화가 생겼다. 또한, 진취적인 정신으로 외래 문화를 흡수해 독자적인 식문화 및 놀이,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다. 보수와 진취, 이 두 정신으로 승화된 문화의 증거가 집중되고 현존하는 지역은 히토요시 구마밖에 없으며, 일본문화의 축도를 눈 앞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소설가인 시바 료타로는 이 지역을 '일본에서 가장 풍부한 은신마을'라고 불렀다.

히 토요시 쿠마 전역에있는 41의 문화재가 일본 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1 개의 문화재 중에서 11 개의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국보 아오이 아소 신사



많은 사원과 사적, 문화재가 오늘날에도 남겨져 있는 히토요시. 그 중에서도 806년에 창건된 아오이 아소 신사는 히토요시 구마 지방을 수호하는 신사이자 이 지방 최대의 신사로, 1200년의 세월과 역사를 새겨 왔으며 5동의 사전(본전, 회랑, 헤이덴, 하이덴, 누문)이 2008년 6월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사의 상징인 역사품로 지붕을 엮은 누문을 비롯하여, 화려하게 장식된 조각 등은 모모야마 시대의 호쾌하고 장엄한 건축 양식을 오늘날에 전합니다.



구마 소주



구마 소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류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 1995년, 일본에서 최초로 「구마」와 함께 2지역의 소주가 산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구마 소주는 구마 지방의 맑고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쌀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히토요시 구마 지방에는 28개의 양조장이 있는데, 각 양조장이 서로 경쟁하듯이 약 200 종의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구마 소주의 증류 방법에는 상압과 감압의 2종류가 있습니다. 향기롭고 깊은 맛을 내는 상압 증류주와, 깔끔한 주질을 만들어 내는 감압 증류주 모두 맛 보시기 바랍니다.



히토요시 성터



「섬월성」 「초승달성」이라고도 불리는 히토요시성은 히토요시 구마 지방을 700여년에 걸쳐 통치했던 사가라 일족의 거성입니다. 본격적인 축성은 전국시대에 시작되었으며 게이초 연간(1596~1615)의 제20대 번주 사가라 나가쓰네공이 근세의 히토요시성을 완성시켰습니다.



구마가와



사가라 영주는 수량이 풍부한 구마강을 교통, 쌀, 목재 등의 물자를 수송하는 데 대부분 이용했다.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는 철도 운수로 바뀌었지만 강을 이용한 수송의 전통은 지금의 강을 내려가면서 관광하는 '카와쿠다리'로 이어오고 있다.



히토요시 온천



약 500여년 전에 사가라 일족의 번주가 히토요시 온천에 입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온천. 이 온천은 마을의 중심을 흐르는 구마가와 강변에 접재하며, 현지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온천의 성분은 약알칼리 탄산천 등. 미인 온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사가라 33관음성지 순례



히토요시 구마 지방에는 1번 사찰에서 33번 사찰(35군데)까지 전부 35개의 관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춘분과 추분을 전후로 33군데의 관음성지를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33관음성지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각 사찰에서 지역 주민들이 순례자에게 녹차와 야채 절임 등을 대접합니다.



오이카미 신사

사가라 영주를 수호신으로 모셔놓고 지역주민들이 '늑은 신'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모으는 신사.



쇼젠인관음당

히토요시 번 둔갑고양이소동에 관련한 관음당. 이치후사 신사 참배시에는 번주가 들렀다. '코마네코'가 참배하러 온 사람들을 마중한다.



운순카루타

일본 에도시대 중기 막부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히토요시 번에서만 놀이법이 계승됐다. 지금은 히토요시 시민단체가 계승하고 있다.



쇼센사 아미다당

재지호족인 구메 씨가 세웠다고 전해온다. 이후에도 사가라 영주와 민중의 보호와 신앙을 받아 건물과 본존, 석탑들은 지금도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구마켄

가위바위보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놀이. 연회의 여흥으로 진 사람이 소주를 마셔야 하지만 소주를 더 마시고 싶어서 일부러 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